

# 해외석유정보

본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에서 발간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 편집자 주 -

##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건설계획

이전부터 중동의 원유공급 안정성에 대한 아시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베리아의 나호토가항까지의 전장 4,000km의 파이프라인(능력=100만b/d)을 건설하자는 새로운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의 우랄원유를 최초로 직접 극동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수입하는 대부분의 중동원유와 경쟁하는 것으로서, 동부 시베리아에서 생산되는 석유 약 180억Bbl의 판로가 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전국적인 파이프라인 조업기업인 트랜스넵트가 나호토가의 전천후형 항구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일본, 한국, 대만, 중국에도 손을 댈 듯 하다. 트랜스넵트의 세미온 바인스톡 사장은 이번달 말까지 이 계획을 푸틴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동시베리아에서 BP가 조업하는 코빅타 가스 프로

젝트의 대주주인 튜멘 오일 컴퍼니(TNK)가 또 하나의 지원자이다. 동사는 나호토가의 LNG 시설까지의 병행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부설을 생각하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총 공사비 17억~25억\$로 건설기간은 3년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기술적, 재정적 리스크에 대한 의문과는 별도로 수송요금은 최초 10년간 톤당 15~29\$, 그 후는 톤당 14~15\$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 파이프라인은 원유를 수송하기 위한 기간시설을 만든다는 것 외에 이 지역에 대한 보다 큰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도 할 듯 하다.

러시아의 계획은 생산량이 금년 초 720만b/d에서 2015년까지 900만b/d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파이프라인은 현재 러시아 원유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시베리아로부터의 신규 원유공급의 배출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는데, 동시베리아를 통해 극동 연안으로 연장되어 이 석유가 풍부한 지역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서시베리아 일부 유전의 생산량은 2010년 이후, 약 632만b/d의 예상피크시를 지나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시베리아의 칸티 만시스크 지방으로

부터 새롭게 원유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Yukos의 자회사 유간스크네프테가스가 소유하고 있는 광구가 대부분으로 120억Bbl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Yukos도 주요 기업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토무크지역 이남은 240억Bbl의 가채매장량이 부존되어 있다.

석유자원이 풍부하게 있는 미개발지역인 동시베리아지역은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주요 라이선스를 스라브네프트와 Yukos가 나눠 갖고 있는 260억Bbl의 유르브체노 타크흠스카야 광상만 해도 68만b/d의 생산이 기대된다.

〈연료유지신문, 2002. 3. 27〉

## 세계석유수급의 태풍의 눈, 러시아

OPEC의 가격조정기능은 미테러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그 효력을 잃어, 지금은 비OPEC의 협력이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OPEC과 비OPEC의 협조감산으로 2002년의 세계석유수급은 유지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석유 세어 확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대국 러시아는 90년대에 경제 사정 악화로 감소한 석유 세어의 회복을 노리고 있다.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세계 제일을 자랑하고 있어 Saudi Arabia에게는 강력한 rival이다. OPEC의 세계 세어는 40% 밑으로 떨어진 만큼 러시아가 석유수출 확대를 단행하면, 비OPEC과 OPEC의 협조감산은 공중분해되게 된다.

러시아는 석유회사의 대부분이 민간기업인데, 정부도 수출감축에 대해 '요청'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OPEC의 감산요청에 대해 수출을 올해 1월부터 15만b/d 삭감했을 뿐, 국내생산량은 반대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미테러 이전에는 15\$이던 러시아의 원유가격은 공급과잉으로 5\$까지 떨어졌다. 4~6월도 OPEC과의 협조자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국내석유회사의 수출압력이 강하다. 러시아의 석유회사인 Yukos는 증산자세를 강화하고 있어, 러시아의 석유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 세어탈환

구소련의 생산량은 90년에는 1,200만b/d 이상에 달해 전세계의 약2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에는 급감하여, 약 700만b/d까지 떨어졌다. 러시아는 98년에는 경제위기에 처했었지만, 99년의 석유가격 상승과 동시에 경제사정도 호전되었다. 러시아의 에너지정책은 석탄, 가스를 우선 사용하고, 외화를 벌기 위해 석유는 수출로 돌리고 있다고 중동연구소 등에서는 지적한다. 러시아 정부는 OPEC의 3월 총회후인 3월20일에 수출감축을 6월 말까지 연기한다고 표명했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질 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러시아 석유회사의 조업코스트는 업계 평균으로 5.50\$/B이기 때문에 국내가격이 거의 원가에 가깝다. 석유회사는 수출확대 쪽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의 주요 석유회사로는 Lukoil, Yukos, Surgutneftegas, Tyumen Oil(TNK), Tatneft, Sibneft 등이 있다. 6개사 생산계획 합계는 2001년의 534.69만b/d에 비해 2002년에는 569.67만 b/d로 6.5% 증가했다. 특히, Yukos는 러시아정부와 대

결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2001년의 116.7만b/d에서 140.58만b/d로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 Yukos의 증산계획만 보더라도 수출감축 목표보다 15만b/d가 많다. Lukoil의 생산계획에는 러시아 이외의 생산량도 포함되어 있는데, 2001년에는 157.24만b/d, 2002년에는 161.06만b/d로 늘어난다. 동사의 조업 cost는 10.05\$/B인데, 국내에서는 적자를 보는 가격이다. 동사는 Caspian Sea 등 신규 지역에서 투자처를 찾아 2005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인 듯하다. 국내석유기업의 생산계획은 Surgutneftegas가 2001년 88.42만b/d, 2002년 94.39만b/d, TNK가 각년도 81.55만b/d, 72.63만b/d, Tatneft가 동 49.43만b/d, 48.6만b/d, Sibneft가 동 41.35만b/d, 52.41만b/d이다. 중동경제연구소는 2/4분기부터 석유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국내수급이 타이트해질지는 불확실하다.

IEA에 의하면, 2002년의 비OPEC 공급량은 4,770만b/d이며, 전년대비 95만b/d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DOE는 90만b/d, Argus지는 70만b/d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95만b/d 중 54만b/d가 구조련권, 이 중 42만b/d가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이라고 하니 향후 석유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구조련권의 생산량은 2000년 792만b/d, 2001년 856만b/d, 2002년 910만b/d이며, bottom이던 '95년보다 200만b/d 이상 회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의 공급량은 2000년에는 650만b/d, 2001년에는 702만b/d, 2002년에는 744만b/d로 급증했다. 구조련권의 수출량은 2000년의 432만b/d에서 2001년에는 470만b/d로 증가했다. OPEC의 share가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구조련의 석유 share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세계의 12% 정도까지 확대되었다.

## 러시아의 에너지사정

러시아연방에서는 확인석유매장량은 2000년말 현재 486억배럴(세계석유의 4.6%), 생산량은 653.5만b/d(9.0%), R/P(매장량대생산량비율:원유가채년수)는 20.6년이다. 비OPEC의 확인매장량은 1,667억배럴(15.9%)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비OPEC의 약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비OPEC의 생산량은 3,564만b/d(47.5%)이다. 그러므로, 원유가채년수도 비OPEC 평균인 13.4년보다 길다. 러시아의 생산량은 90년 당시에는 1,040.5만b/d에 미쳐 2000년보다 40.6%나 많았다. 그러나, 시장자유화에 실패하여, 경제가 혼란에 빠져 '91년에는 932.5만b/d, '92년에는 804만b/d, '93년에는 717.5만b/d, '94년에는 642만b/d, '95년에는 629만b/d, '96년에는 611.5만b/d까지 떨어졌다. '97년에는 622.5만b/d로 약간 회복했지만, '98년에는 617만b/d, '99년에는 618만b/d로 다시 감소했다. 2000년에는 원유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러시아는 37.5만b/d의 증산에 성공했다.

러시아의 석유소비량은 2000년 247.5만b/d(세계 share의 3.5%), 생산량이 배 이상 많다. 남은 부분은 수출로 돌리니까 OPEC의 생산조정에 의한 고가유지를 통해 얻은 이익은 크다. 석유소비량은 '90년의 501.5만b/d에서 '91년에는 489만b/d, '92년에는 449.5만b/d, '93년에는 379만b/d, '94년에는 326.5만b/d, '95년에는 293.5만b/d, '96년에는 260.5만b/d, '97년에는 259.5만b/d, '98년에는 248.5만b/d, '99년에는 253.5만b/d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정부가 석유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석유를 대체해 천연가스와 석탄으로 shift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제능력은 구조련권에서는 900만b/d, 세계 share의 11.0%를 차지하고 있다. '90년에 1,231만b/d인 정제능력은 '91년에는 보합에 머물렀고, '92년에는 1,009만b/d, '93년에는 1,008.5만b/d로 감소했다. '94년에는 1,021.5만b/d, '95년에는 1,030만b/d, '96년에는 1,034만b/d, '97년에는 1,041만

b/d로 조금씩 증가했지만, 노후화가 진행되어 '98년에는 999만b/d, '99년에는 900만b/d에 머물렀다.

무역동향에서는 구소련권의 수출은 2000년에는 427.3만b/d로 세계 share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92년에는 221.1만b/d, '93년에는 243.6만b/d, '94년에는 253.1만b/d, '95년에는 273.1만b/d, '96년에는 323.9만b/d, '97년에는 341.3만b/d, '98년에는 356.9만b/d, '99년에는 401.9만b/d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현재 구소련권에서 서유럽으로 251.1만b/d, 중앙유럽으로 80.6만b/d로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남미로는 16.2만b/d, 미국으로는 6.6만b/d, 아프리카로는 1만b/d를 수출하고 있다. 아시아로는 중국에 9.6만b/d, 일본에 0.6만b/d, 기타 아태지역에 15만b/d, 다른 나라에도 4.7만b/d 수출하고 있다. 국적불명의 수출치가 41.7만 b/d 이다.

구소련권의 원유처리량은 2000년에는 456만b/d로 세계 share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90년에는 915만b/d 였기 때문에 반감되었다. '91년에는 882만b/d, '92년에는 715.5만b/d, '93년에는 592.5만b/d, '94년에는 507.5만b/d, '95년에는 489만b/d, '96년에는 462.5만b/d, '97년에는 473.5만b/d, '98년에는 448만b/d, '99년에는 447만b/d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수출입으로 보면, 2000년의 구소련권은 수입이 원유 0.6만b/d, 제품 11.7만b/d에 비해 수출이 원유 286.2만b/d, 제품 141.1만b/d이다. 천연가스에서는 러시아의 확인매장량은 2000년말 현재 48조 1,400억m<sup>3</sup>로 세계 share의 32.1%를 차지한다. 중동 전체물량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구소련권에서는 84.9%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생산량은 5,450억m<sup>3</sup>, 세계 share에서는 22.5%이다. 미국 다음으로 많다. 천연가스의 가채년수(R/P)는 미국의 10배로 83.7년이다.

생산량은 '90년에 5,979억m<sup>3</sup>, '91년에 5,998억m<sup>3</sup>, '92년에 5,974억m<sup>3</sup>, '93년에 5,765억m<sup>3</sup>, '94년에

5,664억m<sup>3</sup>, '95년에 5,554억m<sup>3</sup>, '96년에 5,611억m<sup>3</sup>, '97년에 5,326억m<sup>3</sup>, '98년에 5,513억m<sup>3</sup>, '99년에 5,510억m<sup>3</sup>로 세어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큰 수치이다. 소비량은 2000년에는 3,772억m<sup>3</sup>(세계 share 15.7%), '90년 4,201억m<sup>3</sup> 였기 때문에 감소했다. '91년에는 4,311억m<sup>3</sup>, '92년에는 4,173억m<sup>3</sup>, '93년에는 4,160억m<sup>3</sup>, '94년에는 3,909억m<sup>3</sup>, '95년에는 3,778억m<sup>3</sup>, '96년에는 3,799억, '97년에는 3,504억m<sup>3</sup>로 줄었지만 '97년을 경계로 '98년에는 3,647억m<sup>3</sup>, '99년에는 3,627억m<sup>3</sup>로 늘어났다.

2000년의 무역에서는 pipeline을 이용해 독일에 340억m<sup>3</sup>, 이탈리아에 211억m<sup>3</sup>, 프랑스에 134.7억m<sup>3</sup>, 터키에 103억m<sup>3</sup>, 슬로바키아에 79억m<sup>3</sup>, 헝가리에 78억m<sup>3</sup>, 체코에 75억m<sup>3</sup>, 오스트리아에 51억m<sup>3</sup>, 핀란드에 43억m<sup>3</sup>,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32억m<sup>3</sup>, 그리스에 16억m<sup>3</sup>, 크로아티아에 11.1억m<sup>3</sup>, 슬로베니아에 6.5억m<sup>3</sup>, 스위스에 6억m<sup>3</sup> 수출하고 있다. 석탄의 확인매장량은 2000년에 1,570.1억톤, 생산량은 1억 1,580만톤. R/P는 500년을 넘는다. 소비량은 1억 1,040만톤이다. 생산량은 '90년에 1억7,620만톤이다. 소비량은 1억8,060만 톤이었기 때문에 모두 감소하고 있다. '98년까지 계속 감소했지만, '99년에는 생산량 1억1,200만톤, 소비량은 1억940만톤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원자력은 '90년 3,050만톤, 2000년 3,370만톤(세계 share의 5.0%). 1차에너지 공급은 2000년 6억2,130만톤(세계 share의 7.1%).

## 러시아정세

2000년 5월에 취임한 푸틴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국민은 많다. 여론조사에서는 약 70%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정권은 안정적이다. 러시아는 '98년에 금융위기에 처했지만, '99년에는 상승세로 돌아서 이후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광공업생

산 증대, 투자증가, 무역흑자 확대, 금외화준비고 증대, 루블화 안정,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 국내소비 확대, 실업률 감소 등 밝은 재료가 많다. 2001년에 국내소비와 투자 확대가 현저하다. 장기와 단기 사회경제프로그램의 실현을 목표로 내걸고 있어 경제의 개혁 달성 여부가 주목된다.

러시아연방의 면적은 1,707만km<sup>2</sup>, 미국의 2배나 된다. 인구는 2002년 1월 현재 1억 4,400만명, 그 가운데 러시아인이 81.5%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다음으로 타타르인 3.8%, 우크라이나인 2.9% 등이다. 러시아어가 공용어이다. 이 외에 100개 이상의 언어가 있다. 종교는 러시아정교가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외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등이 있다. 공화제 정치이며, 원수는 대통령. 임기는 4년, 2회로 제한되어 있다. 러시아연방의회는 연방원과 국가원의 2원체제. 국가원의 정당으로는 2001년 12월에 「통일」과 「조국」을 통합(발표는 2001년 4월), 「통일과 조국」을 결성하여, 정권지지세력의 우위가 명확해졌다. 정권측이 제출한 법안은 순조롭게 제정되고 있다. 수상은 카샤노프, 외무장관은 이바노프.

주요산업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금, 다이아몬드와 같은 광공업을 비롯해 철강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섬유공업이다. GNI는 3,290억\$, 1인당 GNI는 2,250\$이다. 실질 경제성장률(GDP)은 '98년의 △4.9%에서 '99년에는 5.4%, 2000년에는 8.3%, 2001년에는 5.0% 상승했다. 수출총액이 1,030억\$에 달하는 데 비해 수입총액은 339억\$에 머물러 있어 무역으로 외화를 벌고 있다. 수출품은 석유, 천연가스, 철·비철금, 기계·설비 등이다. 수입품은 기계·설비, 식료품, 농작물 등이다. 무역상대국은 제1위가 독일, 제2위가 벨라루시, 제3위가 우크라이나, 제4위가 이탈리아, 제5위가 미국 순이다. 환율은 1\$당, 30.9루블이다.

(Oil Report, 2002. 4. 8)

## 수퍼메이저, 석유메이저에서 에너지메이저로

### 메가머저를 통해 체제강화

대형합병을 마무리하고 거대해진 수퍼메이저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체제 강화에 들어 갔다. 수퍼메이저의 2001년 영업실적은 사상 최고 이익을 기록한 2000년에는 못 미치지만, 하류부문에서는 작년 실적을 상회하는 수익을 확보하는 등의 실적을 올렸다. 이것은 메이저들이 하류부문을 중심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인원감축이나 물류제휴 등 대대적인 restructuring을 단행하고, 더 나아가 '98년의 원유가격 급락을 계기로 시작된 국제적인 합병·재편에 의해 합리화를 철저히 추진했기 때문이다. 상류부문에서는 미테러 이후의 수요감소와 원유가격 하락으로 2001년에는 영업실적이 전년실적을 밑돌았지만,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장래를 대비한 사업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석유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개발에 의욕적인데, 중앙아시아의 Caspian Sea 주변지역, 구소련권이나 중국, 중근동 유망지역의 권익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력이나 가스 등 에너지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태양광발전이나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노력하는 등 '석유메이저'에서 '에너지메이저'로 꾸준히 탈피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화·자유화를 거치면서 시장지배력 확보를 지향하는 수퍼메이저의 의욕적인 전략전개가 가시화되고 있다.

메이저간 재편은 '98년부터 2000년에 걸쳐 급속

히 진행되었다. BP는 '98년 12월에 Amoco와 합병, 2000년 4월에는 Arco도 흡수하여 거대해졌다. Exxon과 Mobil은 '98년 12월에 합병을 발표, '99년 10월에 EU위원회, 11월에 미국 FTC의 승인을 거쳐 합병, 울트라메이저 ExxonMobil로 탄생했다.

Mobil과 BP는 '96년 8월 유럽의 하류부문에서 제휴했었는데, ExxonMobil의 탄생에 따라 2000년 2월 제휴를 해소했다. Royal Dutch Shell은 메가머저는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하류부문 중심의 철저한 restructuring을 추진했다. '97년에는 미국내 자회사 Shell Oil이 미국 서부와 중서부에서는 Texaco, 동부에서는 Texaco와 사우디 ARAMCO 합작회사 Star Enterpriser와 하류부문의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98년에는 미국내 일부 판매사업을 Equilon과 Motiva로 분리하여 경쟁력을 강화했다. ExxonMobil, Royal Dutch Shell, BP 등 Big 3에 이어 프랑스의 Total, 벨기에의 페트로피나가 '99년 6월에 합병하여 TotalFina가 탄생, 그 이후에 France의 Elf Aquitaine과의 합병으로 2000년 2월에는 TotalFinaElf가 출범했다. Caltex를 통해 지중해 동쪽에서 합작사업을 전개해온 Texaco와 Chevron도 2000년 10월 합병, ChevronTexaco가 탄생했다. 일찍이 세계 석유시장을 지배했던 Seven Sisters를 대신해 ExxonMobil, Royal Dutch Shell, BP, ChevronTexaco 4개사와 새롭게 부상한 프랑스계 메이저 TotalFinaElf 등 5개사가 대형합병을 마무리 짓고 체제강화, 시장지배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메이저들이 잇달아 대형합병에 착수한 것은 단독으로는 한계에 달한 cost절감이나 restructuring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중앙아시아 등 신규 유망지역의 광구개발이나 외자도입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강인한 재무체질과 기업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생산지역, 판매망, 상류·하류부문 조합, 석유, LNG, 화학 등 각자 자신 있는 분야의 상호보완을 통해 최적체제를 구축하여

사업portfolio를 강화한다는 목적도 있다. 98년 당시는 OPEC의 증산과 아시아 경제위기에 의한 수요 감소가 겹쳐 석유가격이 하락, 정제·판매마진이 크게 축소되었었다. 이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메이저간 합병·재편이 급진전된 것이다. 합병·재편을 통해 정제·판매마진 축소에 견딜 수 있는 강인한 경쟁력을 갖춘 슈퍼메이저가 어떠한 사업전개를 보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상류부문 투자 확대

2000년에는 합병·재편에 의한 합리화·효율화 효과와 아울러, OPEC 감산에 의한 원유가격 상승도 작용해 슈퍼메이저는 상류부문 중심으로 사상최고의 영업실적을 확보했다. 2001년에는 미테러사건 이후의 수요감소와 원유가격 하락으로 상류부문 수익은 2000년 실적 정도는 못 되지만, 합병·재편효과에 따라 하류부문에서는 대부분의 메이저의 이익이 늘어났다. ExxonMobil은 2001년에는 상류부문 순이익이 2000년의 123억6,900만\$에서 104억2,900만\$로 15.7% 감소한 것에 비해 하류부문 순이익은 34억1,800만\$에서 42억2,700만\$로 23.7%나 늘어났다. RD Shell의 상류순이익은 94억3,600만\$에서 80억4,700만\$로 14.7% 감소했지만, 하류순이익은 30억3,800만\$에서 33억7,700만 \$로 11.2% 증가했다. BP도 상류순이익은 157억1,000만\$에서 144억9,800만\$로 7.7% 줄었지만, 하류부문에서는 45억5,800만\$에서 48억3,000만\$로 6.0% 이익이 늘어났다. ChevronTexaco도 상류에서는 73억5,800만\$에서 57억9,500만\$로 21.2%의 이익감소에 머물렀지만, 하류에서는 15억\$에서 19억3,000만\$로 28.7%나 순이익이 늘어났다. TotalFinaElf만은 상류에서는 101억1,000만 Euro에서 89억6,000만 Euro로 11.4%,

하류에서는 31억4,000만Euro에서 29억6,000만Euro로 5.7%가 각각 감소했지만, 하류부문의 이익 감소율은 상류부문보다 훨씬 작다.

2001년에는 제품가격이 하락하여 정제·판매마진이 축소되었는데도 슈퍼메이저는 하류부문 수익을 확보하여, 상류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것은 메가머저를 통해 하류부문을 강화하여 저마진에서도 수익을 탄탄히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했기 때문일 것이다. 2001년에는 ExxonMobil은 상류부문 투자를 전년보다 27%, RShell은 상류부문 중심으로 투자액을 38%, BP는 탐광생산투자를 38.8%, ChevronTexaco는 14.4%나 늘렸다. TotalFinaElf도 상류부문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2002년 이후도 상류부문 투자는 늘어나는 방향에 있어, 슈퍼메이저의 유망권익취득·매수의욕은 강하다. 특히, 장기간 참여할 수 없던 공공산권의 유망지역이 공개되어, Globalization을 배경으로 국경의 벽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슈퍼메이저의 권익참여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상류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상류부문의 시장점유율이 하류부문 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는 메이저가 대부분을 지배하던 중동이나 중남미의 석유자원에 대한 주권이 OPEC 대두에 의해 산유국으로 옮겨져 자원의 대부분을 산유국 정부가 쥐고 있다. 원유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과 생산량, 정유공장 정제능력, 석유제품 판매량 등 6개 지표에 대해 PIW가 매년 작성하고 있는 세계석유기업순위에서는 2000년의 종합순위는 ExxonMobil이 3위, Shell이 5위, BP가 7위, TotalFinaElf가 8위로, 메이저의 순위는 그다지 높지 않다. 1위는 사우디아람코, 2위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4위가 이란 국영석유회사, 6위가 멕시코의 PEMEX 등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가 메이저보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들 모두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과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단지, 하류부문의 정제능력 순위에서

는 1위가 ExxonMobil, 2위가 RShell, 3위가 BP, 6위가 TotalFinaElf로 나타났다. 석유제품판매량 순위에서도 1위가 ExxonMobil, 2위가 Shell, 3위가 BP 등인데, Big 3가 상위를 독점하고 TotalFinaElf가 5위, Texaco와 Chevron도 합병후 수치에서는 상위로 약진했다. 그러나, 상류부문의 지배력은 하류부문만큼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슈퍼메이저는 cost절감을 통해 하류부문 수익을 더욱 늘려 상류부문의 권익확보를 위해 포석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 슈퍼메이저의 對日전략

메가머저에 의해 하류부문의 지배력을 강화한 슈퍼메이저의 신노선은 일본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외자계 원매회사인 ExxonMobil은 올해 6월부터 Esso석유, Mobil석유, ExxonMobil Marketing, ExxonMobil Business service 등 4개사를 새로운 회사인 ExxonMobil유한회사로 통합하고, 정제부문을 담당하는 東燃(토넨)제너럴석유로 일체화경영을 강화한다. 동시에 새로운 세계적인 통합시스템인 「STRIPES」를 도입, 업무 process도 일원화하여, 효율향상을 극대화한다. 판매마진 축소를 견딜 수 있는 최강의 경쟁력을 실현함으로써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지더라도 경쟁사를 웃도는 하류부문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RShell그룹의 昭和셀석유도 마찬가지이다. 코스트절감을 철저히 추진하여 Business Portfolio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월28일에는 선임 John.S. 밀즈 사장이 정식으로 선임되어, 이 회사 최초의 외국인사장으로 사업활동에 앞장선다. 3월 30일부터 엔진 청정성 향상을 차별화로 내건 새로운 고급휘발유 「Pura」를 시판, 하류부문수익 확대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들 2개 그룹은 일본 석유판매시장을 코아시장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share확대를 위해 필

요 없는 경쟁으로 수익성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시세 안정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ROE(주주자본이익률)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대 전략목표이다. 거기서 확보한 이익은 '에너지메이저로의 변신'을 위한 투자에 쓰일 것이다.

Shell 그룹은 천연가스·전력부문을 '98년부터 core business로 독립시켜 2001년 현재 세계27개국에서 전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RDSHELL이 전액 출자해 Shell Gas & Power Japan이 2000년 7월에 발족했다. Shell그룹은 일본용 LNG의 45%를 차지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최대 LNG공급업자인데, 1972년에 Brunei산, '83년에 말레이시아산 LNG 공급을 시작한 이래, 대형 전력·가스사와 긴밀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동경가스와 합작으로 발전사업자용 천연가스판매회사 「니시오」를 설립, 천연가스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다. 일본의 주유소사업에서 철수하여 중국 등 아시아의 성장시장으로 옮긴 BP도 대형합병으로 천연가스 보유 규모가 Top Class로 확대된 만큼 천연가스와 전력을 하나로 취급하는 Gas & Power사업 활동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전개한다. ExxonMobil도 인도네시아와 카타르로부터 일본 LNG 수요의 약 20%를 공급하고, 帝國(테코꾸)석유와 공동개발한 천연가스를 東京전력에 판매하고 있다. Shell, BP, ExxonMobil은 모두 세계 각지에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독립발전사업(IPP)을 전개하고 있는데 Gas & Power사업에 의욕적이다. ChevronTexaco는 전력·가스판매에 강한 다이너지를 산하에 두고 있고, TotalFinaElf도 석유보다 가스생산의 증가가 크다.

일본과 가까운 사할린섬의 꿈의 가스개발 프로젝트는 ExxonMobil이 사할린석유가스개발과 제휴하는 사할린 I, Shell이 三井(미쓰이)물산, 三菱(미쓰비시)商事와 연합하는 사할린 II가 동시 추진되고 있다. 사할린 I은 2008년부터 파이프라인방식, 사할

린 II는 2006년부터 LNG형태로 일본공급용 출하를 시작할 계획이다. 수송수단은 대조적이긴 하지만, 2대 슈퍼메이저가 사할린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해 참가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사할린가스의 對일본 공급 출하가 실현되면 일본의 에너지공급 지도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파이프라인의 沿線이나 사할린 LNG의 공급권내에서는 가스시장이 급속히 확대되어 환경면에서도 電源의 천연가스로의 shift가 촉진될 것이다. 전력·가스 자유화진행을 목표로 슈퍼메이저의 Gas & Power 분야의 경쟁이 일본시장에서 확대될 가능성은 크다.

(Oil Report, 2002. 4. 1)

## 일본내 ExxonMobil 그룹, 4사 통합

일본내 ExxonMobil group은 일본내 기업형태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6월 1일자로 관련회사 4사(옛 소석유, Esso석유의 자회사인 모빌 석유, ExxonMobil marketing과 ExxonMobil business service)를 ExxonMobil 유한회사로 통합한다. 이 통합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기업형태 최적화에 관한 검토 결과 시행하는 것으로 4개사는 2월 27일에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합병계약서에 의거하여, 4사는 옛소석유를 존속회사로 6월 1일자로 합병하는데, Mobil석유, ExxonMobil Marketing, ExxonMobil Business가 피합병회사가 된다.



합병후 회사명은 「ExxonMobil유한회사」로 하고, 동사는 피합병회사 3사의 모든 업무, 자산, 책임을 승계한다.

자본금은 500억엔, 사장은 G.W.푸르싱氏이다.

ExxonMobil그룹의 일본내 사업은 업무위탁 하에 두개의 주요 회사, 즉 ExxonMobil과 東燃제너럴석유에 의해 운영된다. ExxonMobil은 연료판매, 유회유·Specialty 및 Service 3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연료판매부문은 동사 자체 연료판매사업과 업무위탁계약에 의거한 東燃제너럴석유의 연료판매사업을 담당한다. 東燃제너럴석유는 동사의 정제·공급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업무위탁계약에 의거하여, 계속 ExxonMobil의 정제·공급분야 업무를 위탁한다.

ExxonMobil은 업무위탁계약에 의거하여 다른 ExxonMobil group각사에 대하여 계속 관리부문 service를 공급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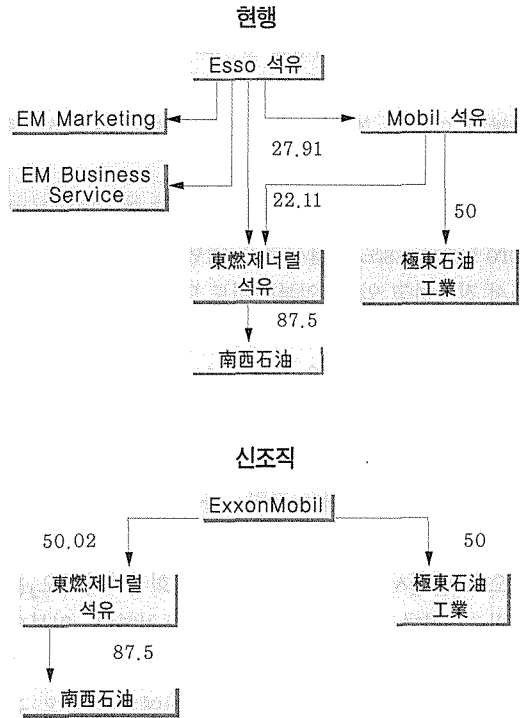
이번 기업형태 변경으로 고객·대리점·특약점과의 관계나 group의 brand에 변화는 없다고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복잡한 기업형태를 간소화함으로써 사내의 업무효율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東燃제너럴석유의 주주의 소유주식

東燃제너럴석유 입장에서 옛소석유가 모빌석유를 통한 지분 간접 소유 등으로 모회사였지만, group 4사의 합병에 따라, ExxonMobil이 東燃제너럴석유의 주식을 직접 보유함에 따라 ExxonMobil이 東燃제너럴석유의 모회사로 변경된다.

주식변경전은 옛소석유 177,130,340주(발행필 주식 총수의 27.91%), 모빌석유가 140,372,000주(22.11%)이지만, 변경후는 ExxonMobil이 317,502,340주(50.02%)를 보유하게 되는데, 보유주식수는 변동 없다.

일본내 ExxonMobil 그룹 조직도



(주) 숫자는 출자율, 숫자가 없는 것은 100%

〈석유문화, 2002년 2호〉

## 일본, 수입경유 탈세 봉쇄작전후 1년

### 계속되는 탈세적발

‘지자체간 제휴가 상당히 강화되었다’. 수입경유

의 경유引取稅(32.1엔/l) 탈세방지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작년 4월의 개정지방세법 시행후 1년이 경과했다. 총무성 자치세무국 都道府縣稅課의 담당자는 세제개정 이후, 과세청에 의한 탈세 적발이 동경, 오사카, 홋카이도 등 전국 규모로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경유引取稅 탈세 적발은 동경都 主稅局이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2월말까지 실시한 것 만해도 10건 있고 가산금 및 벌금 상당액을 합한 탈세총액은 39억594만천엔에 달한다.

이 중에는 靜岡(시즈오카)현 熱海(아미)시의 석유수입판매회사에 의한 사상 최대 탈세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으로부터 경유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dummy회사에 보세판매한 것처럼 위장 납세신고를 하면서 21억3,332만6천엔을 都에 납부하지 않았던 사건으로 都는 2월에 이 회사 사장 등을 동경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都道府縣 과세청에 의한 강제조사나 압류 등 都가 실시한 것을 포함해 탈세로 판명된 것만 해도 1都 1道 1府 11縣으로 관련 피의자는 지방세법 위반으로 잇달아 체포되었다. 검찰당국이 기소한 사건도 적지 않다. 특히, 건당 탈세액이 크다는 것이 수입경유 탈세의 특징이다.

### ‘타법령조회’ 도입

수입경유의 추계 탈세액은 약 800억엔. 총무성은 개정지방세법 시행에 의해 6월 1일 수입분부터 원매업자나 특약업자 이외의 수입업자가 수입한 경유의 과세방식에 ‘보세지역으로부터의 引取時 과세’를 도입. 종래의 양도 후 과세를 바뀐 통관까지 경유引取稅를 신고납부시키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했다.

동시에 재무성과 협력해 都道府縣과 세관과의 ‘연락제도’를 신설. 세관이 都道府縣에 수입업자의 정

보를 제공, 연락 받은 課稅廳은 수입업자가 원매업자나 특약업자가 아니면 즉시 신고 납부지도에 착수하는 2중 포위망으로 탈세경유의 국내수입을 적극 저지했다. ‘세관이나 저유소에 직원을 파견해 압류지원으로 분주했다’라고 말하는 都主稅局의 간부는 지자체간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작년 7월 이후, Hydro Cracker Oil(HCO)로 불리는 규격 외 경유의 수입이 증가했다. 이 기름은 지방세법상의 경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引取時 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애로점이었는데, 과세청의 추적조사로 통관한 업자가 자동차용경유로 판매한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과세를 실시했는데 연락제도는 이러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관련 성청의 탈세방지대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신규 수입업자의 등록제를 근간으로 하는 금년 1월의 석유비축확보법 시행에 따라 자원에너지청과 재무성이 이번 4월 1일부터 관세법(70조)에 기초해 새롭게 ‘타법령조회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세관이 통관시에 석유비축확보법에서 비축의무를課하고 있는 揚陸時의 수입업자의 등록을 확인하지 않으면 수입시키지 않는 제도로 비축의무의 확실한 이행이 목적이지만, 사실상의 결정적인 탈세봉쇄대책이기도 하다.

### 벌칙강화 움직임

타법령조회제도에서는 보세지역내에서 轉賣가 실시되어 揚陸업자와 다른 업자가 수입신고한 경우, 세관은 에너지청에 조회. 에너지청이 揚陸업자를 추적조사·심사해 무등록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세관은 수입을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유종을 원유, 휘발유(개질휘발유 포함), 등유, 경유, 중유로 하고 粗油나 윤활유, 폐유 외에 HCO

등도 증유의 한 종류로 분류. 등록업자가 아니면 수입할 수 없는 유종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등록을 절대 조건으로 하는 이 제도에서는 무엇을 수입하든 수입신고 물량이 50kℓ를 넘으면 확인대상이 된다.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는 HCO에도 비축의무가 부과된다. 揚陸단계에서부터 빠져나갈 길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판매업체 관계자는 개정지방세법과 석유비축확보법에 의한 '윈, 투펀치'를 통해 탈세방지shift는 완성되었다'라고 본다. 그러나, 부정하게 납세를 면한 경유가 터무니없이 저가로 유통되기 때문에 가격시정이 제대로 안되어 시장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위기감은 여전히 강한 것이 사실이다.

탈세문제는 향후, 약 1,400억엔이라는 고전적인 탈세수법의 혼화를 어떻게 근절하는가로 초점이 옮겨진다. 27개 都道府縣은 작년 10월, 합동 노상 경유 채취조사를 실시했다. 노상검사는 혼화탈세적발의 단서가 되지만 일부 都道府縣의 세무당국이나 판매업자에게는 작년 7월 형법개정으로 신용카드 등의 위조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 만해도 5년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에서의 혼화경유의 구입·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정비를 모색할 움직임도 있다.

등유·B-A유 뿐만 아니라, HCO 등 다른 유종에도 식별제 첨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별제가 첨가되지 않은 유종과 경유를 섞으면 노상 검사에서도 혼화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첨가유종의 확대와 품질확보법에 식별첨가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총무성·都道府縣稅課에서는 '새로운 제도개정보다도 과세청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집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데, 稅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탈세를 조장하는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연료유지신문, 2002. 4. 6〉

## 알코올 연료, 휘발유차에 위험

동 조사위가 주유소내 알코올연료 저장탱크 201개로부터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료에 에탄올이나 노르말프로판올 등의 알코올성분이 27.2~40.4%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시판되고 있는 연료를 사용한 부식성 시험에서는 알코올성분에 의해 알루미늄이 완전히 용해된다거나 질량이 감소하는 것이 밝혀졌다.

알코올연료의 제품·수입업자 2개사에서 실시한 hearing에서는 업자의 浸漬(침지)시험이나 시장조사가 자동차의 사용실태에 맞지 않아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한다는 설명을 얻을 수 없었다.

한편, 자동차측의 검증에서는 연료누설을 일으킨 실제 차량의 잔연료로부터 알코올성분이 검출되어 delivery pipe 端部の 이물로부터 알코올과 알루미늄의 반응생성물을 검출했다. 휘발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품의 부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연료누설의 원인은 알코올성분에 의한 부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국토교통성이 같은 날의 회합에서 밝힌 차량의 문제발생건수는 금년 2월말 현재 75건에 달하고 있다. 조사위는 연료제조·수입업자가 차량과 잘 맞지 않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원인규명이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보호대책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자동차설계상, 상정하고 있지 않은 연료를 시장에 투입하는 경우, 문제발생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다. 📍

〈연료유지신문, 2002. 4. 26〉